

완도군 드론·진단키트로 휴가철 선제적 방역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 뜬 드론. 드론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객의 밀집도를 파악한 뒤 안내방송을 통해 분산을 유도한다. (완도군 제공)

드론 띄워 해수욕장 밀집도 조정 마스크 착용·음식물 금지 행정명령 숙박·위생 업소엔 자가 검사키트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드론을 띄우고 진단키트로 자가 검사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선 것이다. 완도군은 지난달 23일 개장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경우 주 출입구 9곳에 발열 체크 부스를 운영, 진·출입 시 밀집도를 낮추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전 예약제 도입과 070 안심번호 등록,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음주 행위 금지 행정 명령도 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드론을 띄워 해수욕장 이용객의 발열을 체크하고 실의 음주 행위 등 거리두기 위반 사항도 점검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파악해 밀집도가 높은 곳은 안내 방송을 해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숙박·위생 업소에 자가 검사 키트를 비치해 놓고 있다. 종사자와 주민 등이 외지인과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완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고 휴가철 그 어느 때보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군은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안전을 사수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ejhung@

무안군 항공특화산업단 조성 무안공항 인근에...정비 특화



무안군이 항공정비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특화산업단지(조감도)를 조성하고 있다.

항공정비(MRO)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주기적으로 항공기를 정비, 수리, 분해 조립하는 사업이다.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조성 중인 항공특화산업단지에는 항공정비 업체뿐만 아니라 항공기 부품, 물류, 기내식, 항공기 정비 서비스업 등 각종 항공 관련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기 정비 해외 의존도는 약 54%로 규모는 1조3000억원 이상이다. 국내 항공 정비 기업이 턱없이 부족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무안에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되면 항공정비 및 물류산업의 국내 점유율 확대와 무안국제공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우수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암군 3차 재난생활비 1인 15만원씩...지급 순조

영암군의 3차 재난생활비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총 83억원의 재난생활비를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재난생활비를 지급했다. 3차 지급은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군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 실정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 집중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청일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삼호읍의 경우 일과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창구를 운영한다. 읍면에서는 사무실과 분리된 장소를 마련, 세대주 방문을 원칙으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방문신청이 어려운 노인 단독세대, 거동 불편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재난생활비가 가계안정을 통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청년특화 지원사업 선정 원도심·케이블카 관련 창업 지원

목포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청년특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청년특화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과 산업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를 100% 지원받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정식 명칭은 '스타트업 창업·컨설팅 사업'으로 원도심과 해상케이블카 관련 창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된다. 목포 특산물과 관련된 이색창업이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도 장려된다.

사업은 목포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수행하고,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접수 기간은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목포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4개 분야로 진행 중이다.

수산식품 취업지원은 200명 취업 연계를 목표로 기업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 굿잡(중소기업)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170명 취업을 달성했다. 수산식품 창업지원은 신청자 15명 중 9명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며, 4명이 추가로 창업을 준비 중이다.

여성특화 지원사업은 31명이 교육 중이며 오는 9월 취업 경진대회를 거쳐 12명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특화 사업 중 조산·선박·해양플랜트 정비 전문가 양성사업은 오는 6일 교육 시작을 앞두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음주운전...목포시 보건소장 직위해제

김종식 시장 "품위훼손 엄정 처벌"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목포시 보건소장(직무대행)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해제 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목포시는 4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보건소장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장 A씨는 지난 2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향후 인사위

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의 즉각적인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나서고 있는 동료 직원들의 사기저하 등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개인의 일탈로 인한 공직자 품위 훼손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복무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7월 들어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어 확진자 수 줄이기에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후 목포시 총 확진자는 4일 현재 185명으로, 7월과 8월에만 전체 확진자의 30.8%인 57명이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 12명이 최근 확진되면서 발생자 수를 높이고 있다. 예방주사 접종률은 전체 시민의 44.6%인 8만 2243명이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농협 목포신안지부, 신안군에 코로나 예방용품 꾸러미 기부

200박스...취약계층에 전달

신안군은 지난 3일 농협 목포신안지부로부터 코로나19 예방용품 꾸러미 200박스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받은 코로나19 예방용품 꾸러미는 마스크, 손소독 티슈, 손소독제, 손세정제, 비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꾸러미는 신안군복지재단을 통해 신안군 관내 다자녀가구 및 다문화 가정 등에 신속하게 전달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고영인 농협목포신안지부장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청정 신안군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정지역의 건강복지를 위해 협력하고 나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